

교회소식

- 오늘은 자녀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기도에 힘쓰는 부모들이 되시기 바라며 교회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수 중심 성경 읽기' 이번 주 묵상 범위는 사무엘상 17장부터 사무엘하 6장까지입니다. 삶의 중심과 기준에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 영상(Zoom)으로 진행되는 성경공부를 개설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과목	기간	시간	개강	회비 (교재)
저녁 반 (화)	기도	12주	저녁 7시	5/24	\$20
낮 반 (목)	순종하는 삶	12주	오전 10시 30분	5/26	\$25

*기도 과목은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중 한 과목 이상 수료해야 등록 가능

*순종하는 삶은 청지기의 삶,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기도 중 두 과목 이상 수료해야 등록 가능

- 인도자 성경공부가 오는 7일(토) 오후 5시에 영상으로 있습니다(교재 예습).
-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여 중고 물품 바자회를 운영합니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안 쓰시는 물품 사진을 카카오톡 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금액은 선교 기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주관: 2여선교회, 민선희 집사).
-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기사 혹은 영상이 있으면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관리자: 목도미 집사
홈페이지 주소: www.calvary.org.nz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M a y

교회사역일지

5월 1일(주일) 자녀주일
5월 8일(주일) 부모주일
5월 22일(주일) 권사 기도회
5월 25일(수요일) 공동체 주관 수요예배

기도순서

5월 8일 (주일) 박제용 장로
5월 11일 (수) 김창조 집사
5월 15일 (주일) 김병진 목사
5월 18일 (수) 박소진 집사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고미현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허영순, 박혜정

St Luke's Church
130 Remuera Road,
Remuera, Auckland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자녀 주일

24권 18호 2022.05.01

주 일 예 배 오후 1시 00분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예 배 로 부름 마태복음 19:13-14 인도자

*찬 송 10장 다함께

*참회의기도 다함께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288장 다함께

대 표 기 도 장경희 집사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1:14-18 인도자

찬 양 대 찬 양 주 예수 대문 밖에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은혜 위에 은혜러라 이태한 목사

찬 송 304장 다함께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다함께

*응 답 송 41장 (1,3절) 다함께

*축 도 이태한 목사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1:00pm
청년예배 2:45pm
유아부 1:00pm
아동부 1:00pm
청소년부 1:00pm
수요예배 7:30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중앙아시아 K국 강나하르 선교사 소식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드립니다. 봄이 오자마자 금세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에어컨을 사용하는 곳도 제법 됩니다. 제가 사는 집도 점점 더워져서 뜨거운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블라인드로 항상 창문을 가려야 합니다.

교회: N목사님이 S도시로 잠시 쉬러 떠나고, A선교사님도 해외로 컨퍼런스에 가신 동안 교회 주일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풍성하고 깊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어서 감사했습니다.

학원: 제 수업 시간이 주중에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룹은 하나이고 그 외 모두 개인 수업입니다. 개인수업보다 그룹 수업이 다이내믹해서 좋는데 이번엔 개인수업이 많아 가끔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Z자매님: 이 나라에도 러시아 중국 백신 외에 화이자 백신이 들어왔는데 일정 조건의 사람만 맞다가 모두에게 다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Z 자매님과 함께 정부 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고 이틀 후부터 감기, 알러지가 함께 와서 몸이 힘들었는데 어느 날 Z자매님이 학원으로 저를 찾아와 한 손 가득히 음식을 싼 비닐 백을 주고 가셨습니다. 비닐 백에는 고려인 전통 음식이 이것저것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라마단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금식하고, 모스크의 기도를 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친구 Gz의 딸 D도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시간에 맞추어 옆드려 기도하는 그들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더욱 기도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길 간구 드립니다.

나하르 드림

기도제목

1.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는 D를 만나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주님께 대해 말할 수 있도록
2. 수업에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즐겁게 학생들 필요와 수준에 맞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수요 찬양단
기	도	김자경 권사
성	경	마가복음 2:13-17
경	봉	부르심과 따름
독	독	이태한 목사
설	교	80장
찬	송	다같이
합심기도/주기도		

나눔란

2022년 4월 24일 주일에배 설교말씀 <육신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14-18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요 1:1) 육신이 되어 오셨다(1:14)는 진의를 사람의 언어와 지각으로는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이 로고스(Logos)라 부르던 말씀(Word)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며 원리라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알기 원하는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1) 말씀이 육신이 되심: 14절의 “육신”은 단순히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신(창 6:3) 그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즉 죄로 인해 부패하고 죽게 된 육체를 뜻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떡으로 유혹했던 사탄은(마 4:3)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시므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락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거절하신 것입니다(마 4:4). 우리 삶 가운데에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의도를 간파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 말씀이 육신이 되심: 예수님은 한 번도 그분의 신성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육신이 되셨어도(14) 그 존재는 항상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위격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본인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주신 이유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였을 때라는 말씀은(출 40:34)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심을 의미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바로 출발해야만 했습니다(출 40:36).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인 광야에서 받은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출 40:38)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안전하게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름이 덮인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 즉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을 예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는 우리를 만나 함께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제물의 피가 있어야 하듯 이제는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성막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더불어 먹고 마시는(계 3:20)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닌 이미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나 급할 때만 찾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하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삶에 풍성한 열매 맺는(요 15:4)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기록함과 의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 유일한 소망을 알리는 교회가 되도록.
2.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3.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날마다 영적인 성장이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